

이낙연, 이익공유제 정면돌파... 당내 공개 반대 목소리도

“연대·상생 틀 만들어 보자는 보완적 논의”

국민의힘 ‘반시장적’·정의당 ‘특별재난연대세’ 요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익공유제를 화두로 던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안팎의 논란을 정면돌파하려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지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만들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보자는 보완적 논의”라며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TF(태스크포스)를 출범, 단장을 맡은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여러 분야의 원들이 경제계와 실현 가능한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되는 것이 원칙이다”라며 “목표 설정과 이익공유 방식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확인했다. 더불어 “당과 정부는 후

원자 역할이다. 자율적인 상생의 결과에 세제 혜택과 정책적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안하자 국민의힘은 ‘반(反)시장적 발상’이라고 비판했고, 정의당은 ‘자발적 참여’를 언급한 안이함을 지적하며 특별재난연대세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기에서 야권 일각에서는 여당의 요청에 따른 민간의 참여를 ‘자발적’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양극화 심화는 ‘미래 불행의 씨앗’이라는 점을 거듭 지적하며 이익공유제 관철 의지를 재차 밝힌 것이다.

이 대표는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

자가 공동으로 이익을 높이면 자영업자의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를 높이는 식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며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해외에서 일부 글로벌 기업이 시행 중이고, 국내에서도 성공사례가 있다”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찬반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IMF(국제통화기금) 경제위기 때 공적자금이 170조 원 동원됐다. 2008년 경제위기 때 고환율 대책으로 전반적 물가 상승의 고통을 국민이 감내했다”라며 “경제위기를 버틴 사회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양극화라는 괴물이었다. 코로나 이후에도 양극화라는 괴물은 몸집을 키워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통 분담을 위한 이익공유제를 말하자 국민의힘은 ‘반시장적’, ‘공산주의적’이라고 헐뜯을 늘어났는데, 묻고 싶다”라며 “이익 사유화가 친시장적이라면 앞으로 손실도 온전히 사유화하자고 말해야 하는 것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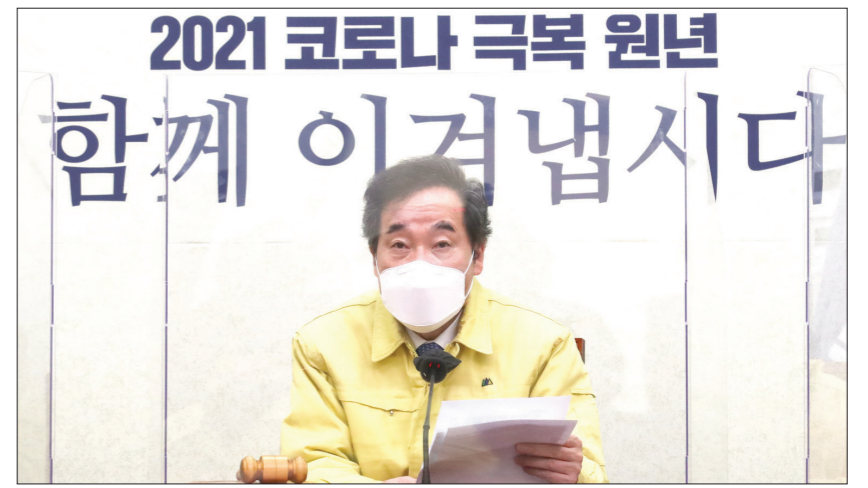
닌가”라고 말했다.

박성민 최고위원은 “고통을 분담하고 상생하자는 이익공유제의 철학을 주장한다면 국민의힘의 고통 분담 대안은 무엇인가”라며 “국민의힘은 손놓고 비판만 하고 싶은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5선 중진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의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낙연 대표의 이익공유제에 대하여 취지는 공감하나 ‘자발적 참여’는 실효성의 담보가 안 된다. 압박 또는 관제기부의 위험도 있고, 이익 또는 손실의 산정도 형평성 시비 논란이 생길 여지가 크다”며 “그것보다는 ‘부유세’ 또는 ‘사회적 연대세’ 방식이 더 낫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화되던 양극화가 코로나19 사태와 디지털 전환으로 더욱 악화되므로 이에 대한 특단의 비상조치가 필요한 때”라며 “자발적 참여라는 우회 방법보다는 부유세 또는 사회연대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라는 정공법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 입법 추진을 위하여 이미 법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TF에서 이익공유제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잘 정착될 수 있는지, 정착되도록 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특정 업계가 이익공유제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배달앱이나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이익공유제 업종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당장 (업계 측을) 만날 계획 없다”라고 말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박병석 의장 “양도세 완화론 우려”

변창흠 “서울에 충분한 물량 가능”



박병석 국회의장(오른쪽)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직무실을 예방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박병석 국회의장은 13일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양도소득세 완화 예기는 시장에 줄 시그널이 아니라, 점에서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 직무실에서 변 장관의 예방을 받고 “정책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정부가 흔들리거나 선거 때문에 정책이 변경될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주게 되면 시장의 안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며 “정부도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론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장은 “국가적으로나 국민 전체적으로 보나 가장 절박한 것이 부동산 문제”라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많은 분이 고통을 받고 있다. 긍정과 부정의 양쪽 측면을 균형적으로 파악해 부동산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유동성이 많이 풀리고 금리가 낮아져 투자처가 마땅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인구는 줄어들지만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주택수요가 더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공급과 수요를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변 장관은 “지금 국민들께서는 서울 주택이 추가적으로 공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을 많이 하는 상황”이라며 “3기 신도시에 본격적으로 입주를 시작하기 전 4~5년 간 불안감을 잠재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충분한 물량이 공급 가능하고 매우 다양한 공급 방법이 있으므로 이러한 정책이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알리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나경원, 서울시장 출마 선언... “안철수, 文정권에 도움줘”

안철수와 후보 단일화 부정적 “쉽게 물러서고 유불리 따져”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독한 결심과 섬세한 정책으로 서울을 재건해야 한다”며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이태원 골목에서 서울시장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년, 국민의 삶과 생각은 너무나도 변했지만, 서울은 제자리에 멈춰버리고 말았다”면서 “강인한 리더십만이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고 출마표를 던졌다.

그는 문재인 정권을 향해 “국민의 기대를 배반했다. 게다가 코로나 위기 속에서 전일 시장의 성범죄 혐의로 서울은 리더십조차 없었다”며 “그 결과는 하나 제대로 못 치우는 분분 터지는 서울, 정인 양을 끝내 지켜주지 못한 무책임한 서울을 우리는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전 의원은 “서울 전역에 백신접종 서클버스를 운행해서 우리 집 앞 골목에서 백신을 맞고, 아파트 지하주

차장에서 백신을 맞게 해드리겠다”며 “중증환자 병상과 의료인력을 추가 확보해 의료시스템 과부하를 막고 의료인들의 고통을 분담해드리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실직자에 대해선 “대거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채용’으로 뽑아 코로나19 사각지대 관리 업무를 맡기겠다”고 했다.

교육정책으로는 “동네에서도 마음껏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켜줄 수 있어야 한다”며 25개구에 25개 우수 학교를 조성하는 ‘서울 25·25 교육플랜’을 제시하는 한편, “각 구별로 2~3개의 시립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센터를 열어 월 2~3만원의 저렴한 비용으로도 원어민과 전문 교육인력으로부터 외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갖고 있어도 세금, 구입을 해도 세금, 팔아도 세금, 틈만 나면 국민 돈 뺏아가는 것을

이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공시지가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무분별한 공시지가 폭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나 전 의원은 “IT 최강국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세계 기술 수도, 혁신수도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면서 “관광의 파리·로마, 금융의 싱가포르·홍콩이 있다면 서울은 AI 허브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겨냥해선 “쉽게 물러서고 유불리를 따지는 사람에겐 이 중대한 선거를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정치 변곡점마다 결국 이 정권에 도움을 준 사람이 어떻게 야권을 대표할 수 있단 말인가”고 비판했다.

그는 “잃어버린 자유 민주주의를 되찾겠다는 독한 마음가짐으로 서울에서부터 민주당과의 섬세한 협치를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